선운사, 지장전 낙성·지장보살 이운

"지장성지로 거듭나길"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1월 23일 경내에서 지장전 낙성 및 금동지장보살좌상 이운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선운사 보살상은 1936년 문화재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 팔려갔다가 1938년 선운사로 환수됐다. 이후 관음전, 성보박물관에 봉안돼 있다가 이번 지장전 낙성에 따라 자리를 옮겼다.

이운법회에는 선운사 한주 재곤 스님, 법현 스님, 선운사승가대학 강주 재연 스님, 학장 환성 스님 등 대중스님들과 신유섭 신도회장, 조옥숙 관음회장, 오성민 대원지장회장 등 불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보살상이 이운된 지장전은 맞배지붕 형식의 정면 3칸, 측면 3칸, 넓이 69.34㎡ 규모로 지어졌으며, 총 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선운사 한주 재곤 스님은 법어를 통해 "선운사 지장보살님은 도난돼 일본까지 건너갔다 돌아오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간 여러 전각에 모셔져 있었지만 이제야 제 자리를 찾게 됐다"며 "지장전 건립을 계기로 선운사가 지장신앙 성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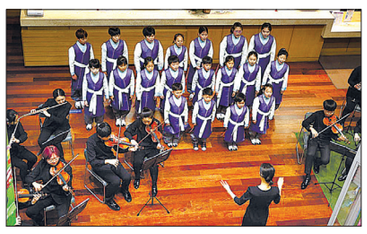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81년 만에 지장보살을 모실 전각을 마련해 기쁘다. 전국 불자들이 지장전에 참배하고 기도원력을 통해 지장보살의 가피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선운사는 24일 교구종회를 개최하고, 18대 교구본사 주지선거를 위한 산중총회를 2월 23일 열기로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환자 쾌유 기원한 천진불 합창

부산 안국선원교육관 어린이합창단 신년음악회



환자들의 쾌유를 기원하는 어린이들의 청아한 목소리가 한 병원에 울려 퍼졌다.

안국선원교육관(관장 석산) 어린이합창단은 1월 17일 부산 좋은강안병원에서 환자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신년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안국선원교육관 어린이합창단 신년음악회는 창단 1주년을 기념해 열렸으며, 공연에 이안청소년오케스트라가 함께했다.

박수영 지도교사는 "2018년 정식 창단 후 첫 무대를 봉사로 시작해 뜻깊다"며 "올해는 창단 음악회를 정식으로 열고 좋은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안국선원교육관 어린이합창단에는 20여 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자기도전포상제를 포함한 체험활동을 함께 운영하고 어린이불자와 청소년 포교에 앞장설 계획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부산聯, 〈선가귀감〉 연수교육

3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조계종 스님들의 교육을 위해 〈선가귀감〉 강의가 열린다. 조계종 연수교육 인증과정으로 교육 이수 후 연수교육 점수도 받을 수 있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는 3월 12일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선가귀감〉 강의를 시작한다. 강사는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이며, 3월 12일부터 4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하루 3시간 5회에 걸쳐 15시간 동안 이어진다. 이번 강의는 조계종 교육원 연수교육 인증과정으로 교육을 이수한 스님은 연수교육 점수(30점)를 받을 수 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부산 및 인근 지역에서 전법과 포교에 힘쓰는 스님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종단이 시행하는 '연수교육 인증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관심을 독려했다. (051)501-7554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설 명절 이웃 행복 기원한 불교계

부산 · 경남, 자비나눔 행사로 훈풍 불어넣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부산 및 경남 불교계는 나눔으로 행복한 새해를 기원했다. 사진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가 사상구청을 방문해 백미를 전달한 모습.

우리나라 최대 명절 설날이 다가오고 있다. 설날을 맞아 부산 및 경남 불교계에서는 따뜻한 나눔으로 '다함께 행복한 새해맞이'를 기원해 훈훈함을 전했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회장 박수관)는 1월 24일 부산 사상구청과 진구청을 방문해 자비의 쌀 나눔을 진행했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는 각 구청에 백미 700포대(각 10kg)씩 총 1400포대(42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또한 박수관 회장은 1월 25일 금정구청에 성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박수관 신도회장을 비롯해 회원들은 "명절이면 더욱 외로움으로 힘든 시간을 겪는 이들이 많다"며 "가족들과 함께 더욱 따뜻한 한 해를 보내고 풍요롭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자비의 쌀은 박수관 회장을 비롯해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마련해 더욱 의미가 깊다.

각 지역을 대표해 김대근 사상구청장과 서은숙 진구청장은 "추운 겨울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지역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는 부산 재가불교계를 대표하며 지난해 7월에 출범했다. 이후 연탄 나눔, 백미전달, 김장나눔 등 이웃을 위한 나눔 행보를 적극 펼치고 있으며, 이웃 종교간 화합에도 앞장서고 있다.

평소 무료급식소 운영으로 모범이 되고 있는 부산 사하구불교연합회는 급식소를 찾는 어르신들에게 떡국 떡을 전달하고 행복한 명절을 기원했다.

사하구불교연합회(회장 법인)는 1월 21일 사하사암무료급식소에서 '자비의 떡국 떡 전달식'을 개최했다.

떡국 떡은 1kg 200개로 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에게 모두 전달했으며 전달식에는 회장 법인 스님, 총무 송우 스님 및 회원 스님들과 박창식 사하경찰서장, 이

4200만원 상당 백미 나눔
무료급식소 떡국 떡 전달
설맞이 음식 및 성금 후원
"풍요로운 명절 기원하며"

경애 사하불교연합회 복지회 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회장 법인 스님은 "지난 한 해 동안 모두가 고생 많으셨다"고 회원과 어르신을 격려한 뒤 "사하불교연합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따뜻한 밥을 지어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며 급식소 운영하겠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계속 찾아 달라"고 인사했다.

사하구불교연합회는 지역 내 불교 자비나눔을 실천하며 경로잔치, 자살방지 및 안전한 여름나기 캠페인, 사하구 불자의 밤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창원 불교계 스님과 불자들은 자비나눔 한마당을 개최하며 새해를 맞이한다.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도홍)는 1월 30일 창원시청 시민홀 대강당에서 '제29회 이웃사랑 자비나눔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공연과 기원문 낭송 및 봉행사로 시작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식을 진행하고, 이어 한부모 ·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협회에 성금 5000만원과 설맞이 용품을 선물로 전달한다.

이웃사랑 자비나눔 한마당은 29년 전 마창불교연합회(마산 · 창원불교연합회)가 창립된 직후 초대 회장 지안 스님의 발원으로 시작해 사단법인 금강자비회의 후원으로 지속됐다. 현재 나눔 성금은 총 9억 원이 넘는다.

불교계 종합복지관인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 400세대에 떡국 거리 및 생필품 전달하고 따뜻한 설날을 기원한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1월 31일 복지관 내 강당에서 '설맞이 사랑나눔 한마당'을 개최한다.

행사에서 복지관은 저소득가정과 독거노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등 총 400세대에 설맞이 떡국거리 및 생필품을 전달하고 더불어 흥겨운 축하공연을 마련한다. 행사 후에는 떡국 공양도 진행해 따뜻함을 더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사단법인 위드아시아 이사장 지원 스님을 비롯해 박재범 남구청장, 박재호 국회의원 등 내빈들이 참석한다. 전달식에 이어 2월 1일에는 용호어린이집 아동과 지역주민이 함께 팀을 이루어 '신나는 윷놀이 한판' 행사도 이어진다. 한편,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떡국 떡과 유과를 판매하고 있다.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요망지게 잘헌상 받았어요!"

신제주불교대학 보리왓 1기 졸업생 151명 배출



약천사 신제주불교대학 보리왓이 1월 19일 보리왓 법당에서 불교대학 1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질 잘헌상(학업 최우수상)" "제라지게 잘헌상(학업 우수상)" "요망지게 잘헌상(모범상)"…. 제주방언으로 만들어진 상장명과 함께 불교대학 학업우수자들의 이름이 불리자 큰 박수가 법당에 울려 퍼졌다. 신제주불교대학 보리왓의 졸업생이 처음으로 탄생한 현장이다.

약천사 신제주불교대학 보리왓(원장 성원)은 1월 19일 보리왓 법당에서 불교대학 1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졸업식에는 원장 성원 스님과 제주 약천사 주지 덕조 스님, 팔공산 은해사 교육국장 용주 스님, 관음사 사회국장 법성 스님을 비롯해 김태식 제주도의회 의장, 조상범 제주 문화스포츠대외협력국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졸업식은 학사보고로 시작해 졸업장 증정 및 상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으며, 보리수어린이합창단이 축가로 축하했다. 이어 인사말과 송별사, 격려사 및 축사 등도 진행됐다. 특히 이날 불교대학은 졸업식에서 수여할 상 명칭을 제주방언으로 제작해 호응을 얻었다. 불교대학은 앞으로도 제주방언으로 상장명을 만들어 지역 특징을 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제주불교대학 보리왓은 2017년 11월 25일 문을 열어 2018년 3월 신입생 172명을 모집, 첫 강의를 시작했으며 1년 동안 수학 과정을 마치고 151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신제주불교대학 보리왓은 제주에서 보기 힘든 강사진을 구성해 수준 높은 강의를 이끌었으며, 수강생의 만족도를 높인 것을 인기 비결로 꼽았다.

원장 성원 스님은 "졸업생들이 각자의 가정과 사찰로 돌아가 사회와 불교를 위해 더 헌신하고 역할을 다하는 것이 불교대학의 존재 이유"며 "앞으로 새롭게 입학할 인연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제주불교대학 보리왓은 신입생을 모집한다. 개강은 3월 7일이며 1년 과정이다. 강의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진행된다. (064)746-0108

제주=하성미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9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집
•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군입대 연기 가능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학자금 대출 가능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9년 2월 15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교학처 : (02)511- 2026, 2027
Fax (02)511- 2028
▶총장실 : (02)511- 1080
▶http://www.njutcm.co.kr